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14]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는 자기를 핍박하고 심히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내용이다. 마태복음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모욕하고(전통본문)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27-28,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둘째로 우리도 과거에 구원 얻기 전에는 그런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 셋째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을 것이고, 넷째로 그들도 어느 날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친히 모범도 보이셨다. 누가복음 23:34,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스테반 집사도 그러하였다. 사도행전 7:60,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15-16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생각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NASB, NIV)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의 삶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삶이다. 취직, 승진, 결혼, 출산 등의 기쁜 일도 있으나, 질병, 사고, 파산, 이별, 죽음 등의 슬픈 일도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도는 이웃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건전한 인격의 모습이다. 믿는 성도들은 서로 생각을 같이하고 감정을 같이해야 한다.

성도는 생각을 같이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히 처신하며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외모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신분에 있지 않고 그의 인격성, 즉 그의 경건성과 도덕성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경건하고 도덕적인 인격이 되어야 한다.

잠언 18:1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고 말한다. 모세 시대에, 레위인 고라와 그의 동료들과 유명한 족장들 250명은 높은 마음을 품고 모세를 대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갈라짐으로 또 불로 그들을 벌하셨다.

교만한 자들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항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와 질서에 순응한다. 유다서에 보면, 이단들의 특징은 원망하고 불만하며 당을 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것이었다(유 16, 19).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17-18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생각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주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다(마 5:39-42).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까닭은 우리 자신이 전에 악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한다.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 우리는 먼저 가서 사과하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잘못이 상대에게 있는 경우,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용서해주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형제가 용서를 빌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교훈하셨다(마 18:22).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과 화목하기가 불가능한 때도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거나 거짓으로 우리를 비난함으로 교제가 끊어졌을 경우, 그런 자와의 교제의 회복은 그가 회개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지만, 그가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면 화목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19-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솥물을 그 머리에 쏟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공의의 심판자이신 그가 우리의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보복하려 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다(마 5:44, 진통본문). 성도가 원수들에게 선을 베풀지만, 만일 그들이 깨닫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머리에 솥물을 쏟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우리는 악에게 굴복하지도 말고 또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것은 악한 자들에게 끝까지 선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야 한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

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교훈하신 바이다. 마태복음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의 긍휼로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고, 원수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서로를 향해 겸손히 처신해야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교우들과 생각을 같이하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15-16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18절).

셋째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 즉 공의의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우리의 의무는 오직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원수 되었고 악을 행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으므로(롬 5:8, 10)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에게 선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의무가 있다.

주일오후설교

장자 재앙

[출 33: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녕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뵈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녕 다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말씀하신 남은 한 재앙은 장자 재앙으로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될 것이다. 그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 앞에

서 은혜를 주셨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금 패물과 은 패물을 요구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강탈한 것은 아니나 그들이 그것들을 요청하자 애굽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실상, 그들이 받은 금은 패물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수십년간 아니 수백년간 종살이한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또 본문은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뵈었더라”고 기록한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기적들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세는 그들 앞에 큰 자로 드러났다.

[4-6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뱃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다. 애굽의 궁궐을 비롯해 애굽의 온 집들의 만아들이 한 날 밤에 동시에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전의 아홉 재앙들 중에는, 우박 재앙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 외에 사람들이 죽은 재앙은 없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에서 각 집의 장자들은 같은 날 밤 동시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前無後無)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7-8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짚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 마지막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평온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도 짚지 않는 평온함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마침내 애굽 왕의 신하들은 모세에게 내려와서 그에게 절하며 굴복할 것이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기를 요청할 것이다.

[9-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

니하였더라.

본문은 열 가지 재앙들 전반에 대해 다시 말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않을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었고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기적들 곧 여러 가지 재앙들을 바로 앞에서 행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았었다. 애굽 왕 바로가 심히 강박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되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재앙, 곧 장자 재앙의 때에 바로는 완전히 굴복하고 말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들이었고 마지막 장자 재앙도 그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며, 온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며 현세와 내세에 참된 평안과 복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을 피하게 하셨다. 이 세상에는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시험과 고난이 많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그는 오늘도 그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애굽 사람들 앞에 크게 하셨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뵈었더라.”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리라.” 사람을 세우시고 파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심이 하나님께 있다. 시편 75:6-7,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

수요일 설교

구원의 노래

[사 26:1]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

과 곱을 삼으시리다.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에 부를 노래를 소개한다. 그것은 구원의 노래,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교만한 악인들을 낮추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 노래는 한 견고한 성읍,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처럼 보호하시는 성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것이다.

[2-3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信)[신실함(faithfulness)]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心志)[생각이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살롬 살롬)완전한 평안으로(KJV, NASB, NIV)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성도는 신실해야 하고,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이어야 하며, 생각이 확고해야 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한 평안으로 지키실 것이다. ‘평안’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여유, 환경적 평안 등을 다 포함한다. 평안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이다(살후 3:16).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정로(正路)요 마땅한 일이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 곧 만세반석이 되신다. ‘반석’은 ‘보호자, 피난처’라는 뜻이다.

[5-6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다.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은 교만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땅에 엎드리지게 하실 것이며, 고난 당하는 그의 백성들이 그들을 발로 밟게 하실 것이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한 평탄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일찍이(KJV), 부지런히(NASB), 아침에(NIV)]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義)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 고난을 당하는 어두운 밤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기다렸고 주의 기념 이름을 사모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며 심지어 큰 징

계를 받는 고난의 깊은 밤이라도 하나님을 이룬 아침부터, 간절히, 부지런히 바란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배우게 될 것이다.

[10-11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와 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니이다 이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 . .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읍이시요 만세반석이시다. 1절,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곱을 삼으시리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만세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시다. 시편 90:1-2,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의 품이시며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품이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한다면, 그를 해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는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세반석 되신 하나님만 영원토록 믿고 의지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평안이 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완전한 평안으로 지키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주님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실 수 있고 또 주시는 분이시다(살후 3:16).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미움과 싸움, 속임과 슬픔이 있지만, 천국은 의와 평안과 기쁨의 세계이며(롬 14:17) 거기에는 완전한 평안이 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빌 4:6-7).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그의 뜻대로 정직하게, 선하게,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들어가려면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이어야 하고, ‘생각이 확고한 자’이어야 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것이며 그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확고한 생각과 마음으로 의와 선을 행하면 풍성한 평안 가운데 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계속 범죄해서는 안 된다(요일 3:9). 성도가 죄를 짓지 않고 힘써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오직 의와 선을 행해야 한다.